

제 116 회

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

(문제지)

※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

급수	사범급	유형	A형	수험번호		-		-		-		
문항수	200	객	50	성명								
		주	150									
시험시간	120분											

수험생 유의 사항

-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답안지에 문제유형(A, B)를 <예시>와 같이 표기하십시오.
- 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.
-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주·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수정방법:
 -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.
 -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.
-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,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.
-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(객관식과 주관식 구분)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.
-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,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.
-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.
-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<예시>

문제유형	
A형	●
B형	○

■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

공인민간자격관리 · 운영기관


 社團 漢字教育振興會
 法人

韓國漢字實力評價院

제116회 한자실력급수 [사범급] 문제지

객관식 (1~50번)

※ []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?

1. [飈] ① 蒲 ② 嬖 ③ 剽 ④ 套
2. [朶] ① 柰 ② 駝 ③ 儼 ④ 迺
3. [蓴] ① 桴 ② 畋 ③ 枸 ④ 蕙
4. [啖] ① 聃 ② 剡 ③ 冉 ④ 枿
5. [僊] ① 闡 ② 擲 ③ 腆 ④ 蘚

※ []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?

6. [勛] ① 昱 ② 穢 ③ 宥 ④ 頊
7. [悍] ① 倥 ② 罕 ③ 捍 ④ 狠
8. [鍋] ① 顛 ② 窠 ③ 裹 ④ 窩
9. [哮] ① 馱 ② 驍 ③ 翹 ④ 梟

※ []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?

10. [鏤] ① 鎗 ② 雕 ③ 摟 ④ 雛
11. [戾] ① 暝 ② 粵 ③ 乖 ④ 咳
12. [籬] ① 葩 ② 箎 ③ 箝 ④ 樊
13. [渚] ① 洵 ② 汀 ③ 滎 ④ 沆

※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?

14. ① 哉 ② 戚 ③ 或 ④ 截
15. ① 私 ② 秋 ③ 稚 ④ 和

※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16. ① 淮尉 : 준위 ② 惻怛 : 측달
③ 筍子 : 검자 ④ 緡錢 : 민전
17. ① 算筒 : 산통 ② 漲溢 : 창익
③ 蕊宮 : 예궁 ④ 杖碁 : 장기
18. ① 嘖蹙 : 빈축 ② 慘愴 : 참담
③ 蠱毒 : 고독 ④ 剔抉 : 역결
19. ① 匙箸 : 수저 ② 些略 : 사략
③ 硅酸 : 규산 ④ 霍亂 : 곡란
20. ① 痰喘 : 담천 ② 剃髮 : 체발
③ 標幟 : 표지 ④ 咐囑 : 부촉

※ []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?

21. 엑스레이 촬영 결과 [요추] 4번이 함몰되어 있었다.
① 腰錐 ② 腰樞 ③ 腰鎚 ④ 腰椎
22. 그는 [박놀] 하나 강직하여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.
① 朴訥 ② 博訥 ③ 撲訥 ④ 拍訥
23. 그녀의 [압설]한 태도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했다.
① 壓泄 ② 鴨洩 ③ 狎褻 ④ 押滌
24. 줄 끊긴 [방패연]은 바람에 날려 저 멀리 감실감실 사라져 갔다.
① 榜牌鳶 ② 防牌鳶 ③ 榜牌椽 ④ 防牌椽
25. [청국장]을 끓이면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어 놓는다.
① 淸麴醬 ② 淸鞠漿 ③ 淸麴漿 ④ 淸鞠醬
26. 두 사람은 [철조망]을 기어올라 경계선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.
① 綴條網 ② 鐵組網 ③ 鐵條網 ④ 綴組網
27. 손이 [수전증]에 걸린 것처럼 떨렸다.
① 手顫症 ② 手電症 ③ 手銓症 ④ 手箭症

※ []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
28. 부왕은 태자에게 []한 신하를 멀리하라고 훈시했다.
① 狻猊 ② 愆滯 ③ 輶軒 ④ 邪慝
29. 할머니는 오래되어서 칙칙하게 []된 한복을 입고 계셨다.
① 絨緞 ② 芒鞋 ③ 褪色 ④ 翠黛
30. 그의 세금 []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.
① 倉廩 ② 露臀 ③ 逋脫 ④ 忖度
31. 이 책은 앞부분의 주장과 뒷부분의 주장이 너무 달라 []스럽다.
① 孔竅 ② 混沌 ③ 輻射 ④ 剛愎
32. 시장은 시민 공원 건립을 시민들과 []을 거듭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.
① 糜爛 ② 赧顏 ③ 緊紮 ④ 爛商
33. 눈사태와 흑한을 견뎌 낼 []한 체력이 없이는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할 수 없다.
① 強靱 ② 纏繞 ③ 騙取 ④ 黜陟

34. 아파트 물탱크 안에 []된 물질들은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었다.

- ① 環經 ② 覈實 ③ 沈澱 ④ 罄盡

※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?

35. 자질구레하게 부스러짐. 또는 그 부스러기.

- ① 濾過 ② 韜晦 ③ 泡沫 ④ 瑣屑

36. 백성이 잘 교화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- ① 櫝丸 ② 刪削 ③ 彭殤 ④ 偃草

37. 변변치 못한 음식.

- ① 糝糠 ② 湜漚 ③ 腥臭 ④ 漸漬

38.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운동으로 근막이나 인대가 상하거나 타박상으로 피하 조직이나 장기가 상한 것.

- ① 枷鎖 ② 綽楔 ③ 捻挫 ④ 聳拔

39.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.

- ① 扞踊 ② 褒貶 ③ 昂騰 ④ 塵寰

40.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.

- ① 醮禮 ② 揖禮 ③ 緬禮 ④ 縶禮

41.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거나 일이 되어 감.

- ① 惱殺 ② 荏苒 ③ 參詣 ④ 茵陳

※ []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?

42. [杵臼之交]

- ① 권세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맺는 교제.
 ②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귀음을 이르는 말.
 ③ 한 번 만나 본 정도의 친분.
 ④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.

43. [烹頭耳熟]

- ①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.
 ②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③ 한 가지 일이 잘되면 다른 일도 저절로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④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.

44. [尾大難掉]

- ① 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서 처리하기가 어려움 이르는 말.
 ② 간사하고 아첨을 잘함을 이르는 말.
 ③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 ④ 참을성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45. [樗櫟之材]

- ① 사위로 삼을 만한 사람.
 ② 글을 빨리 잘 짓는 재주를 이르는 말.
 ③ 여러 세대를 통하여 드물게 나는 인재.
 ④ 아무 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我國은 國小而民貧[㉠]하니 今耕田[㉡]疾作하고 ①用其賢才하고 通商惠工하고 盡國中之利라도 猶患不足이요 又必通遠方之物而後[㉢]라야 貨財[㉣]殖焉이요 百用生焉이라 夫百車之載가 不及一船이요 陸行千里가 不如舟行萬里之爲[㉤]便利也라 故通商者는 又必以(㉥)路爲貴라 我國은 三面이 ㉦環海하니 西距登萊가 直線六百餘里며 南海之南은 則吳頭楚尾之相望也라

46. 문맥상 ㉠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부지런하게 ② 근심스럽게
 ③ 원망스럽게 ④ 나쁘게

47. ㉡~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㉡: 용품 ② ㉢: 세우다
 ③ ㉣: 곧 ④ ㉤: 둘러싸다

48. ㉥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車 ② 陸 ③ 水 ④ 道

49. 이 글의 저자는?

- ① 朴趾源 ② 朴齊家
 ③ 李瀾 ④ 李奎報

50. 이 글이 실린 책은?

- ① 欽欽新書 ② 士小節
 ③ 北學議 ④ 熱河日記

주관식 I (주1~주100번)

■ [주관식 I]의 답은 [OCR답안지]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.

- 주1. 牘 ()
- 주2. 藪 ()
- 주3. 詡 ()
- 주4. 蠲 ()
- 주5. 鬣 ()
- 주6. 桎 ()
- 주7. 騁 ()
- 주8. 噬 ()
- 주9. 眇 ()
- 주10. 錮 ()
- 주11. 蕎 ()
- 주12. 齟 ()
- 주13. 闌 ()
- 주14. 韃 ()
- 주15. 雩 ()
- 주16. 薊 ()
- 주17. 舛 ()
- 주18. 袒 ()
- 주19. 憑 ()
- 주20. 賁 ()
- 주21. 尻 ()
- 주22. 緞 ()

※ 한자의 부수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23. 奪 ()
- 주24. 芻 ()
- 주25. 賡 ()
- 주26. 疆 ()

※ 훈과 음에 맞는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27. 걱정없을 괄 ()
- 주28. 속일 무 ()
- 주29. 부엌 조 ()
- 주30. 번갈아들 질 ()
- 주31. 울 시 ()

- 주32. 결상 탐 ()
- 주33. 끝 유 ()
- 주34. 저울눈 치 ()
- 주35. 지저귀 전 ()
- 주36. 연기자옥할 봉 ()

※ ○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쓰시오.

<보기>	慊	嚼	朽	瑯	繭	籠	羈	塑
---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	---

- 주37. ○絲 生○ ○層 ()
- 주38. 彫○ ○造 泥○ ()
- 주39. 拉○ ○葉 衰○ ()
- 주40. ○旅 不○ ○絆 ()

※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.

- 주41. 黻冕 ()
- 주42. 肉髻 ()
- 주43. 憑藉 ()
- 주44. 甘汞 ()
- 주45. 縻綆 ()
- 주46. 痔瘻 ()
- 주47. 毓精 ()
- 주48. 初褫 ()
- 주49. 賄賂 ()
- 주50. 砂嘴 ()
- 주51. 喧譁 ()
- 주52. 嵇康 ()
- 주53. 牡蠣 ()
- 주54. 肄儀 ()
- 주55. 嫩晴 ()
- 주56. 袂口 ()

※ []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.

- 주57. 피의자를 [집요]하게 신문하는 검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. ()
- 주58. [성학집요]는 율곡 이이가 제왕의 학문을 위하여 지은 책이다. ()
- 주59. 왕의 죽음을 [조락]이라고도 한다. ()
- 주60. 잎이 [조락]해 버린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쓸쓸하구나. ()

※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. (단,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)

- 주61. 菊花紋은 高麗 時代의 螺填 漆器에서 나타나고 있다. (→)
- 주62. 朴 兵長의 輾役으로 우리 小隊에서는 내가 最古參이 되었다. (→)
- 주63. 그는 公職者들 중 判公費를 第一 적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. (→)
- 주64. 귀라기는 恐龍을 包含한 把蟲類가 陸地, 바다, 하늘을 支配하던 時期이다. (→)
- 주65. 戰爭으로 因해 온 家族이 風飛薄散하였다가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20餘 年이 걸렸다. (→)

※ 풀이에 맞게 [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66. [불수강]: 니켈, 크롬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쉽게 녹슬지 않는 강철. ()
- 주67. [증류]: 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일. ()
- 주68. [반연]: 무엇에 이르기 위한 연줄로 삼음. 또는 그 연줄. ()
- 주69. [벽제]: 예전에,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, 일반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여 길을 비우는 일을 이르던 말. ()
- 주70. [두서]: 종이 쓴 책. 책을 별에 줍. ()
- 주71. [천착]: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고 하거나 연구함. ()
- 주72. [관수]: 세수와 양치질을 함. ()
- 주73. [귀부]: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. ()
- 주74. [장롱]: 옷 따위를 넣어 두는 장과 농을 아울러 이르는 말. ()

주75. [반흔]: 상처나 부스럼 따위가 다 나은 뒤에 남은 자국. ()

※ 문장 속 [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76. 천태종을 [표방]한 의천은 그 교리를 설득력 있게 전파하기 위하여 불경 간행 사업을 벌였다. ()
- 주77. 아내의 [채근]이 성화같다.()
- 주78. 허구적 논리를 앞세워 진실을 [호도]하지 말라. ()
- 주79. 할아버지께서는 나의 잘못을 [준엄]하게 꾸짖으셨다. ()
- 주80. [주발]에 담긴 밥이 봉긋 솟아올라 있다. ()
- 주81. 중국 진시황의 무덤에서 엄청난 양의 [도용]이 발굴되었다. ()
- 주82. 우리 고향에서는 봄이면 [두견화전]을 만들어 먹었다. ()
- 주83. 그는 아이의 발바닥에서 유릿조각들을 빼고 소독을 한 후 [붕대]로 감아 주었다. ()
- 주84. 땅 구멍 속에 사는 [설치류]는 눈의 발육이 불완전하고 눈이 거의 털로 덮인 경우도 있다. ()
- 주85. 그는 증거도 없이 사건을 [억측]하여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세웠다.()
- 주86. 아름다운 저 옥잔에 누런 [울창주]가 담겨 있다네. ()
- 주87. [졸사간]에 불이 번져 옆 건물까지 타 버렸다. ()
- 주88. 최대의 [탑재량]을 자랑하는 수송기가 배치되었다. ()
- 주89. 그녀는 오랜 무대생활 끝에 연기에 대한 나름의 방법론을 [터득]하였다. ()
- 주90. [화기애애]한 분위기에 생각보다 자리가 길어졌다. ()

※ []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○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91. [○ 蠶食之]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하여 먹어 들어감. ()
- 주92. [酒果脯○] 간략한 제물을 이르는 말. ()
- 주93. [阿○苟容]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굴. ()
- 주94. [暴○天物]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 버리거나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림. ()
- 주95. [縫○之衣] 예전에 선비가 입던, 옆이 넓게 터진 도포. ()
- 주96. [荒唐無○]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음. ()
- 주97. [○人廣座]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. ()
- 주98. [○入鴉群] 쉽게 평정함을 이르는 말. ()
- 주99. [○豆之戀] 하잘것없는 작은 이익을 단념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)
- 주100. [○視跛履] 분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자초함을 이르는 말. ()

주관식 II (주101~주150번)

■ [주관식III]의 답은 별도의 [주관식 II 답안지]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[]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‘O’, 적절하지 않으면 ‘X’로 표기하시오.

- 주101.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 산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[靑氈舊物]이 되어 버렸다. ()
- 주102. 대적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해후한 처지지만 그들은 [玉石混淆]의 진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었다. ()
- 주103.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주히 [苟安儉生] 했던 그의 노력과 희생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. ()

- 주104. 직책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관록만 타 먹고 있으니 [尸位素餐]이라 할 만하다. ()

※ []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105. 위대한 지도자의 타계 소식에 수많은 국민이 [슬피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.] ()
- 주106. ‘주역’은 64개의 괘로 [만 가지 무리와 여러 현상]을 설명한다. ()
- 주107. 석가모니가 [연꽃을 따서 집어 들고 웃음을 띠자],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차렸다. ()
- 주108. 글을 많이 쓰더라도 [전혀 쓸모없는 소의 오줌이나 말똥] 같은 글을 쓰면 안 쓰는 것만 못하다. ()

※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.

- 주109. 喙長三尺 ()
- 주110. 覆車之戒 ()
- 주111. 佩瓢捉風 ()
- 주112. 龍蟠虎踞 ()

※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.

- 주113. 量吾被 置吾足 ()
- 주114. 上濁下不淨 ()
- 주115. 予所憎兒 先抱之懷 ()
- 주116. 附肝 附念通 (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而寧不於亦與安者猶哉焉直以

주117. 天作孽 ○可違 自作孽 ○可活
《孟子》 (,)

주118. ○不百步耳 是○走也 《孟子》 (,)

주119. 燕雀○知鴻鵠之志○ 《十八史略》 (,)

주120. 禮○其奢也 ○儉 《論語》 (,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富聾困滿揚讚渴受賤收慢寶顯

주121. 見善如○ 聞惡如○ 《明心寶鑑》 (,)

주122.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○名於後世 以○父母 孝之終也 《孝經》 (,)

주123. 邦有道 貧且○焉 恥也 邦無道 ○且貴焉 恥也 《論語》 (,)

주124. ○招損 謙○益 《書經》 (,)

※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[]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.

주125. [虎知走而畏也獸不己] 《戰國策》

국역: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줄 몰랐다.

주126.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[節而以人用愛時使民] 《論語》

국역: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하여 믿음이 있게 하며, 쓰기를 절제하여 사람을 사랑하며, 백성을 부리기를 때를 맞게 해야 한다.

주127. [好憎憎者人人爲亦所] 《說苑》

국역: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다.

주128. [懸項爲耶我誰猫鈴能] 《古今笑叢》

국역: 고양이 목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방울을 달 수 있는가?

※ [] 부분을 국역하시오.

주129. [責難於君 謂之恭] 陳善閉邪 謂之敬 吾君不能 謂之賊 《孟子》 ()

주130. 里仁 爲美 [擇不處仁 焉得知] 《論語》 ()

주131. [而忘越人之殺而父耶] 《十八史略》 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<大同江> -(㉠)

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
大同江水何時盡 ㉠ 別年添綠波

(나) <久雨> -丁若鏞

窮居罕人事 ㉠ 恒日廢衣冠
敗屋香娘墜 荒畦 ㉡ 腐婢殘
睡因多病減 愁賴著書寬
久雨何須苦 晴時也自歎

(다) <㉢> - 朴趾源

老翁守雀坐南陂 ㉢ 粟拖狗尾黃雀垂
長男中男皆出田 田家盡日晝掩扉
㉣ 鳶蹴鷄兒攫不得 群鷄亂啼匏花籬
少婦戴椀疑渡溪 赤子黃犬相追隨

주132. (가)의 형식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
주133. ㉠에 들어갈 (가)의 지은이 성명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
주134. ㉡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
주135. ㉢을 국역하시오. ()

주136. 문맥상 ㉣의 뜻을 쓰오. ()

주137. (나)에서 押韻된 韻字를 모두 쓰시오. ()

주138. (다)의 제목 ㉢를 (다)에서 찾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
주139. ㉣을 국역하시오. ()

주140. ㉤을 국역하시오. 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星湖僊說者는 星湖翁之戲筆也라 翁之作是說也는 何意오 直無意아 無意면 奚其有此哉오 翁은 乃優閑者也라 讀書之暇에 應世遁俗하여 或得之傳記하고 得之㉠자집하고 得之詩歌하고 得之傳聞하고 得之談諧하여 或可笑可喜하여 可以存閱을 隨手亂錄하여 不覺其至於多積이라 始也엔 爲其挑忘錄之卷하고 旣又爲之目하여 列於端하고 目又不可以徧閱일새 乃分門類入하여 遂成㉡권질하고 又不可無名일새 名之以僊說은 勢也요 非意之也로다 翁이 ㉢窮經二十年에 凡見解聖賢遺意하여 各有成說하고 又喜著書하여 其寓物酬人序記論說은 別有采輯호되 如僊說者가 不敢載之向之數者는 則其爲無用之冗言이 定矣라 ㉣비언에 云 ㉤我食屬厭하나 棄將可惜이라하니 此僊說所以起也로다

〈星湖僊說序〉

- 주141. ㉠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42. ㉡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43. ㉢의 뜻을 쓰시오.
()
- 주144. ㉣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45. ㉤과 뜻이 통하는 2음절의 한자성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人心之動이 因言以宣하나니
發禁躁妄이라야 ㉠內斯靜專하나니라
矧是樞機니 興戎出好하나니
吉凶榮辱이 惟㉡其所召니라
傷易則(㉢)이오 傷(㉣)則支하며
己肆物忤하고 出悖來違하나니
非法不道하여 欽哉㉤훈사하라

《(㉢)》

- 주146. ㉠을 국역하시오.
()
- 주147. ㉡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)
- 주148. 문맥상 ㉢와 ㉣에 들어갈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(㉢: , ㉣:)
- 주149. ㉤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()
- 주150. ㉤에 들어갈 이 글의 제목을 漢字(正字)를 쓰시오. ()

- 수고하셨습니다 -

합격자 발표: 2024. 6. 13. (목)
결 과 조 회: 홈페이지 (www.hanja114.org) 접속
(성명, 생년월일, 수험번호 필수 기재)

제116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1)

■ 객관식 ■

1	③	6	③	11	③	16	③	21	④	26	③	31	②	36	④	41	②	46	①
2	②	7	①	12	④	17	②	22	①	27	①	32	④	37	①	42	②	47	④
3	③	8	④	13	②	18	④	23	③	28	④	33	①	38	③	43	③	48	③
4	①	9	③	14	①	19	①	24	②	29	③	34	③	39	②	44	①	49	②
5	④	10	②	15	④	20	③	25	①	30	③	35	④	40	③	45	④	50	③

■ 주관식 I ■

주1	편지 독	주21	공무니 고	주41	불면	주61	塡→鈿	주81	陶俑
주2	늪 수	주22	뱀 치	주42	육계	주62	輾→轉	주82	杜鵑花煎
주3	자랑할 후	주23	大	주43	빙자	주63	判→辦	주83	繡帶
주4	밝을/맑을 견	주24	艸	주44	감홍	주64	把→爬	주84	齧齒類
주5	말갈기 렫	주25	貝	주45	미경	주65	薄→雹	주85	臆測
주6	차꼬 질	주26	田	주46	치루	주66	不銹鋼	주86	鬱鬯酒
주7	달릴 빙	주27	愒	주47	육정	주67	蒸溜	주87	猝乍間
주8	씹을 서	주28	誣	주48	초배	주68	攀緣	주88	搭載量
주9	두렁길 진	주29	竈	주49	회뢰	주69	辟除	주89	攄得
주10	땀질할 고	주30	軼	주50	사취	주70	蠹書	주90	和氣靄靄
주11	메밀 교	주31	嘶	주51	흰화	주71	穿鑿	주91	稍
주12	어긋날 저	주32	榻	주52	혜강	주72	盥漱	주92	醯
주13	가로막을 란	주33	揄	주53	모려	주73	龜趺	주93	諛
주14	그네 천	주34	鎚	주54	이의	주74	穢籠	주94	殄
주15	기우제 우	주35	轉	주55	눈칭	주75	癍痕	주95	掖
주16	엉경귀 계	주36	燧	주56	메구	주76	標榜	주96	稽
주17	어그러질 천	주37	繭	주57	執拗	주77	採根	주97	稠/衆
주18	옷통벗을 단	주38	塑	주58	聖學輯要	주78	糊塗	주98	鶻
주19	권할 용	주39	朽	주59	殂落	주79	峻嚴	주99	棧
주20	클 분	주40	羈	주60	凋落	주80	周鉢	주100	眇

제116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2)

▣ 주관식 II ▣

주101	○	주118	直 , 亦	주135	항상 의관도 걸치지 않고 있네
주102	X	주119	安 , 哉	주136	팔꽃
주103	X	주120	與 , 寧	주137	冠 殘 寬 歎
주104	○	주121	渴 , 龔	주138	田家
주105	哀號涕泣	주122	揚 , 顯	주139	개꼬리 같은 조 이삭에 노란 참새 매달렸네
주106	萬彙群象	주123	賤 , 富	주140	솔개가 병아리를 채려다 못 채 가니
주107	拈華微笑	주124	滿 , 受	주141	子集
주108	牛溲馬勃	주125	虎不知獸畏己而走也	주142	卷帙
주109	허물이 드러나서 숨겨 감 출 수가 없음.	주126	節用而愛人 使民以時	주143	경서를 연구함.
주110	앞사람의 실패를 보고 뒷사 람은 교훈으로 삼아 스스로 를 경계한다.	주127	好憎人者 亦爲人所憎	주144	鄙諺
주111	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헛되 이 하려 함.	주128	猫項 誰能爲我懸鈴耶	주145	鷄肋
주112	웅장한 산세	주129	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권면 하고 책하는 것을 일러 공손하다 고 하고	주146	안이/마음이 이에 고요하고 전일하 게 된다
주113	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.	주130	가려서仁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 찌 지혜롭다 하겠는가.	주147	言
주114	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.	주131	너는 월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 지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?	주148	㉠: 誕, ㉡: 煩
주115	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 다. (미운 아이 먼저 품어 라.)	주132	七言絕句	주149	訓辭
주116	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 다 한다.	주133	鄭知常	주150	言箴
주117	猶 , 不	주134	別淚		